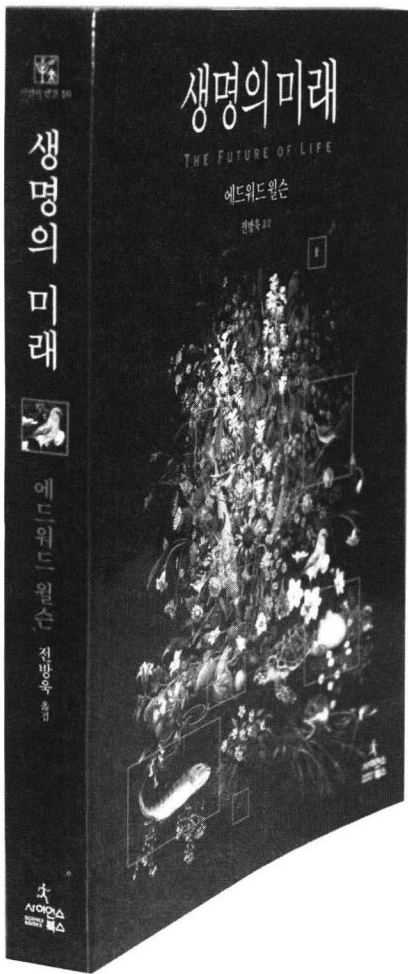


인간이여, '생명의 미래'를 위해 한 발 물러서자

에드워드 윌슨 《생명의 미래》



《생명의 미래》

에드워드 윌슨 지음 | 전방욱 옮김 | 사이언스북스 | 352쪽 | 값 15,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본론으로 들기 전에 여담 하나 하자. 이것도 '책' 과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필자는 어쨌든 간에 행복한 사람이라고들 한다. 딸 둘과 아들이 모두 "아버지가 전공한 생물학을 따라 했다"고 그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마운 아이들이다! 사람들은 다 제 전공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긴다. 그런데 자식들 까지 내 '유전자' 를 이었으니!?

아들놈은 대전 KAIST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오랜만에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 책상 위에 놓인, <TIME>지의 꺼풀(커버)에 실린 황우석 씨의 사진이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순간, 이맛살을 찌푸리는 게 아닌가. 서로 마음을 읽으니 말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미국에서 박사 후 과정(post doc.)을 하는 선배가 창피를 당했대요, 지도교수가 실험공책을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아, 저 일을 어쩌나? 서울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 짓이 그 학생의 공책을 넘기게 했도다. 무슨 이런 창피한 일이 다 있나. 아, 통재라! 선배를 잘못 둔 죄로다.

실은 다음 이야기를 하자고 서두를 꺼냈다. 아들에게, "나도 이야기 하나 하마. 왜 내 생물에세이 책 중에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있지 않느냐. 그 책에 황우석 씨의 연구내용이 꽤 길게 들어있다. 엇그제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말이야, 그 책을 재판하는데 즐기세포 글을 빼고 다른 원고로 채워달라는 것이야. 기가 차더라고. 다른 여러 출판사도 그 양반에 관한 책을 회수하느라 야단을 쳤다는데... 그래서 그 글은 그대로 두고, 글 옆에다 '이 글을 쓸 때 까지는 참뻘이었다'고 써두라고 했지. 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야" 어느새 아이들 교과서에도 글이 올랐다는데, 참 다들 성질도 급하지...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난리가 있담. 생명과학을 전공한 선배로서 독자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생명의 미래THE FUTURE OF LIFE》이야기다. 에드워드 윌슨Edward Osborne Wilson이 쓰고 전방욱 교수가 번역한 책이다. 그동안 난삽한 글로 몇 권의 책을 소개한 바 있는데, 여태 윌슨의 책을 빠뜨렸다. 윌슨은 한마디로 '사회생물학sociobiology' 이라는 새로운 생물학의 장르를 정립(창시)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생물학에서 다루지 않던 것을 근래 새로이 개척한 분야 중의 하나다. 학문의 영역도 끝없이 진화한다.

윌슨은 '개미 박사'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 명저를 저술한 과학저술가' 로 그동안 2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대표작으로 《사회생물학

Sociobiology》《인간본성에 대하여On Human Nature》《개미 The Ants》《통섭Consilience》 등이 있다. 그는 통크게 글을 쓰는 사람이다. 단편적인 쪼가리 글을 쓰는 필자는 거기에 비하면 도토리 정도다. 우리보다 몇 배나 길고 오래된 그들의 과학역사에 비하면 이만해도 제법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찝찝한 것은 부인 못한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날 수는 없는 법, 새가 날 때 어디 바로 날아오르던가. 날개 짓을 열심히 해서 부력을 받은 다음에 비상飛上한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가면 저 사람들 못잖은 과학에다, 과학서술가도 생겨나겠지, 반드시!

조금만 더 보태보자. 서양과학은 물경 200년이 넘는 역사(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물론 영zero이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왜정시대, 건국 후 군정에다 6·25사변으로 과학이 거의 전무했다. 1960년대,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 겨우 씨앗을 심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현대과학의 역사는 50년이 채 못 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기초과학은 여전히 그들과 거리가 멀지만, 응용과학은 따라 잡거나 앞선 분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후배들, 제자들이 너무나 가상스럽고 자랑스럽다. 우리가 누군가! 과학서적도 속도를 같이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과학 만세!

돌아와서, 이 책의 번역은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고, 시인이 된 강릉대학교 '괴짜' 전방욱 교수가 맡았다. 윌슨은 번역경험이 풍부한 방 교수를 잘 만났다. 책 저자의 소원이 뭔지를 필자는 안다. 오직 많이많이 읽혀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은 번역가를 만났으니 제대로 번역이 되었고, 하여 더 많이 팔리지 않겠는가. 이리저리 윌슨은 복 받았다.

글을 읽다보니 눈에 확 띄는 내용(101쪽)이 들어있다. '왕달팽이 Achatina fulica'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식용달팽이 임, 필자 주) 이야기다. 조금 고쳐서 소개하면, "예측치 못한 일련의 불상사가 태평양과 인도양의 섬에서 일어났다. 섬 달팽이를 황폐화시킨 사건이다. 1900년대 초기에 아프리카 원산인 육상달팽이, 왕달팽이를 정원의 장식물裝飾物로 널리 도입했다. 이 거대한 연체동물은 곧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섬에 살아온 달팽이를 잡아먹고 작물에도 해를 끼쳤다. 1950년대에 이 괴물 왕달팽이에 대적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원산인 다른 달팽이rosy wolfsnai를 도입했다. ... 하지만 이는 불박이 달팽이의 절멸絶滅사태를 가져왔다. ... 하와이에도 예상과는 달리 왕달팽이는 잡아먹지 않고, 보다 훨씬 작은 고유종(특산종)을 먹어 치웠다. 그래서 하와이에 서식하는 고유종의 절반 이상이 절멸하고 말았다." 독자들은 인간의 간섭이 자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발하려 하는 글임을 눈치챘을 것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되야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인간은 자연의 연쇄살인범이다"라고 윌슨은 외친다.

최재천 교수가 자신의 지도교수인 윌슨을 제일 잘 알 것이다. 이 책 내용도 그럴 것이고, 최 교수의 서평 한 조각을 퍼왔다. "윌슨은 우리를 구원할 해결책은 결국 '생명사랑biophilia'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은 생명과 생명다양성이 풍부한 자연경관을 사랑하게끔 태어났다는 것이다. 신을 상상하고 우주를 무대로 삼으려면 틀림없이 '생물군生物圈, biosphere'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생명사랑의 윤리를 재인식하여 이 지구와 이곳에 사는 장엄한 생명을 우리 모두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지구는 하나 밖에 없는 우리의 '어머니'다. 어찌자고 어미를 혈통고 생채기 내어 피를 흘리게 하는가? 고안 자식 놈들! 고마움을 모르는 네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야 말지어다.

현재 지구상에는 '경제주의자' 즉 '인간중심주의자'들과 여기에 반기를 드는 '환경주의자' 즉 '생물중심주의자(보전생물학자)'들의 각축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보전생물학자들은 생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코뿔소HIPPO'를 들고 있다. 여기서 HIPPO는 H Habitat destruction(서식처파괴), I Invasive species(침입종), P Pollution(오염), P Population(인구), O Overharvesting(과한 수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지구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윌슨이 어느 편인가를 우리는 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연을 정복해야한다는 부류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눈에 쌍볼을 켜는 환경보존주의자가 맞선다. 불꽃이 튼다. 멀리 갈 것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롱뇽 한 종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고속전철 공사가 중단 되는 판이고 바다물막이 공사도 오랫동안 멈춘 적이 있다. 먹고 사는 것도 중하고 지구를 살리는 것 또한 귀중한 일인데, 어찌지? 이를 두고 진퇴양난, 딜레마라 하던가.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생共生, 상생相生하는 방법은 없을까? ❏